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자원과 생활만족도

Personal Resources and Their Eff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Retired Husbands and Their Wives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신 화 용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조 병 은

Dept. of Human Dev. & Family Studies, Duksung Women's University

Asso. Prof. : Hwa Yong Shi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 : Byung Eun Cho

● 목 차 ●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I.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문제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 |

< Abstract >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economic, social, psychological, and marital resourc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related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retired husbands and their wives. Economic resources included actual income, the amount of reduced income after retirement, and perceived adequacy of income, while social resources consisted of the supports from children, relatives, friends and neighbors. Psychological resources constituted sense of mastery and marital resource was measured by the emotional supports from the spouse.

Data from 178 couples in Seoul revealed that retirees and their spouse perceived retirement as a very stressful event, with husbands viewing their retirement as more stressful than their wives.

The retirement related stress was found to be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couples. For retired husbands, life satisfaction was closely associated to sense of mastery and supports from children and relatives. The health status, perceived adequacy of income, sense of mastery, and supports from

children and relatives were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for wives.

Therefore, the effects of personal resources on life satisfaction were smaller than that of retirement related stress for both retired husbands and their wives. Along with discussions, implications for retirement education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are provided.

주제어(Key Words): 은퇴한 부부(the retired husband and their wives), 인적자원(personal resources), 생활만족도(the life satisfaction)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은퇴는 노년기뿐만 아니라 중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보편적 규범적 생활사건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중·장년기 남성들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과 가족의 적응을 요한다. 그러나 은퇴 후의 적응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은퇴를 개인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여 개인적 특성이 개인의 은퇴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김정현, 1995; 김애순·윤진, 1995; 김태현 외 1998; 지연경·조병은, 1991; 허정무, 1993).

미국의 경우 초기의 연구는 은퇴를 인생의 위기로 보는 입장이 강조되었다(Atchley, 1976; Streib and Schneider, 1971; Carp 1980). 그러나 이후의 연구들은 은퇴가 매우 중요한 전환기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응을 잘하고 있으며 은퇴 후의 상황에 만족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Bosse, Aldwin, Levenson & Workman-Daniels, 1991; Floyd, Haynes, Doll, Winemiller, Lernsky, Burgy, Werle & Heilman, 1992). 이러한 현상은 은퇴가 강제적이지 않고 자발적이며, 은퇴에 대한 준비 및 사회 보장제도가 비교적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은퇴 자체 보다는 건강상태나 경제적 안정이 은퇴 후의 적응이나 만족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은퇴연령, 은퇴에 대한 준비 부족, 비자발적 은퇴,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은퇴는 매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며 은퇴 후의 적응에 어려움이 크다(김애순·윤진, 1995; 이승아, 1998; 지연경·조병은, 1991; 최성재, 1989; 태원경, 1995). 이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 후의 적응 수준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편 은퇴는 은퇴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인 사건이다. 특히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남성 은퇴자의 대부분이 결혼관계에 있으며 이 때는 적극적인 부모역할이 감소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년기의 가족관계에서 부부관계는 가장 중요하며 은퇴로 인한 남편의 역할 변화와 적응은 동시에 부인의 변화와 적응을 필요로 하며 이는 부부 모두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태현·전길량, 1997; 조병은·신화용, 1997). 또한 선행연구들은 은퇴를 개인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였으며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나 개인의 자원이 은퇴 후의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편 은퇴 후 부부가 인지한 은퇴스트레스와 개인적·가족적 자원인 경제적 자원, 사회적 지원, 심리적 자원, 부부관계적 자원이 부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적응

은퇴는 남성들이 인생의 후반기에 겪는 중요한 역할 전환이다. 은퇴 후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남성의 은퇴 경험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남성에게 있어 직업은 단순히 생활수단이나 경제적 부양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므로 직업상실은 수입 감소, 사회

적 관계망의 감소, 소속감의 부재 등의 정체감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로 인한 역할상실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은퇴를 경험한 세대는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에 따라 역할의 분리가 뚜렷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퇴는 당사자에게는 물론 부부관계나 가족 전체에 스트레스를 주며 변화와 적응을 요구한다.

은퇴제도가 일찍이 정착된 미국의 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은퇴를 비교적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Bosse et al., 1991; Floyd et al., 199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정년연령, 은퇴에 따르는 준비부족, 사회적·경제적 역할 상실, 소득의 감소, 사회복지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남성들의 은퇴는 스트레스나 불안의 대상으로 지각되는 경향이 크다. 김에순·윤진(1995)은 60세 이전에 은퇴한 사람들은 은퇴를 상실이나 위협상황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은퇴 후 전반적인 적응 수준과 생활만족도가 떨어짐을 보고하고 있다. 지연경·조병은(1991)도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는 은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김향은·정옥분(1992)의 연구는 퇴직을 앞둔 50대 남성들의 경우 퇴직과 관련된 불안이 크게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노후 적응에 대한 연구는 은퇴한 사람들의 적응을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노년기의 적응을 생활만족도의 맥락에서 알아보았으며 생활만족도는 주로 삶의 질이라는 개념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보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건강, 교육수준, 경제적 만족도, 그리고 결혼상태 등과 같은 개인적 자원이 노후의 인생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김종숙, 1987; 김에순·윤진, 1995; 김태현 외, 1998; 이춘희, 1993).

자원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이용할 수 있으며 도움의 원천이다. 자원은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충분하고도 적절한 자원을 가졌다면 은퇴상황을 문제시하

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부정적 영향력을 줄이거나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다. 반면 자원이 부족할 경우 개인은 은퇴를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으로 인지할 수 있고 적응에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은퇴로 인한 수입의 감소,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 건강의 악화 등으로 인해 은퇴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자원들이 어떻게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시키고 은퇴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2. 은퇴 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

은퇴 후의 적응수준은 개인이 소유한 자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은퇴 후의 적응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경제수준, 건강상태, 교육수준, 사회활동수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자원의 영향력을 규명하였으며 심리적 자원이나 부부관계적 자원 등은 연구되지 않았다. 또한 여러 자원의 영향력을 동시에 본 연구도 제한적이다. 본 절에서는 은퇴 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1)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은 은퇴 후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당히 많은 연구에서 적합한 수입은 은퇴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 요인이며 노동자 계층에서는 경제적 상태가 조기 은퇴를 하게 하는 주된 이유임을 밝히고 있다(Atchley, 1976). 정년퇴직을 앞둔 중년 남성의 퇴직관련 심리적 불안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은퇴 후의 생계문제가 자녀문제나 소외문제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향은·정옥분, 1992). 또한 많은 연구들(김에순·윤진, 1995; 김정현, 1995; 성미애, 1999; 이은영, 1996; 허정무, 1998)이 생활수준, 수입 등이 은퇴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수입액수 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만족감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김태현 외, 1998). 그러나 경제적 자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계층의 경우 재정상태만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나 중상계층의 경우 경제적 자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현 외, 1998).

2) 사회적 지원

가족, 친척, 친구, 이웃과 같은 사회적 지원망은 은퇴 후의 적응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지원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은퇴 후의 적응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노년기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지원망이 부족하므로 사적 지원체계가 노인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농촌 도시노인 모두 자녀, 친척, 이웃과 다양한 유형의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서적, 도구적, 경제적 지원을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자녀와의 접촉빈도, 관계망의 크기, 지리적 근접성 등과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원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이형실, 1999). 이은영(1996)은 은퇴한 남성노인들이 좋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성미애(1999)도 자신의 직업과 가족생활 모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은퇴자가 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노인들은 이웃이나 친구로부터 주로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지원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정아·서병숙, 1992; 서병숙·이현, 1995; 이형실, 1999). 또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가족, 친척, 친구 및 이웃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우울감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자·김태현, 1999).

3) 심리적 자원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성특성, 스트레스에 대한 태도, 그리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행동 등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 스트레스에 관

한 연구들은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통제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김애순·윤진, 1995; George, 1980). 연령 증가에 따라 내적 통제성은 증가하며 이는 대부분의 노인에게 있어 효과적인 스트레스 극복 방법이라고 한다(Reid, Haas, & Hawkins, 1977; Statts, 1974). 허정무(1998)의 연구에 의하면 퇴직 교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퇴직자 자신의 자아존중감 정도이었다. 퇴직자 스스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퇴직 후의 생활에 만족하였다. 이철우(1991)는 성격유형을 성숙형, 은둔형, 방어형, 의존형 등으로 분류하여 정년퇴직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있는데 의존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았다. 또한 심리적 요인이 노년기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본 김태현 등의(1998) 연구에 의하면 상황에 대한 대처양식과 자기효능감이 노인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애순·윤진(1995)은 은퇴상황을 새로움을 추구하는 도전상황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적응수준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경·조병은(1991)의 연구는 내외통제성이 강할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함을 밝히고 있다.

4) 부부관계적 자원

은퇴 후에는 부부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므로 배우자로부터의 지원은 은퇴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서구 연구는 은퇴 후 공동의 여가, 상호적인 정서적 지원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Lee & Shehan, 1989; Vinick & Ekerdt, 1989, 1991). 몇 안되는 우리나라의 연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배우자의 지원이 은퇴후 남편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현(1995)은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 극복에 있어 아내의 지지가 절대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화용·조병은(1999)은 남편의 은퇴 후 부인의 역할 수행에 있어 남편에 대한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남편의 정서적 지지가 많을수록 높았다. 그러나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 정도만이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배우자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이었다.

한편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배우자 유무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중숙, 1987; 최정아·서병숙, 1992). 따라서 배우자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중요한 자원의 하나로서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III. 연구문제

본 연구는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은퇴 후 적응에 관한 이해를 위해 적응의 지표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하여, 부부의 심리적, 부부관계적 자원을 포함한 제반자원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남편의 은퇴로 인한 상황을 스트레스 원인으로, 은퇴후의 심리적 적응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경제적 자원으로는 부부의 한달 수입, 수입의 적합성 정도, 은퇴 전과 비교한 수입의 감소 정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심리적 자원으로 부부의 통제감, 부부관계적 자원으로는 배우자로부터 얻는 정서적 지지를, 사회적 자원으로는 사회관계망을 통한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원을 선정하였다. 은퇴 후 부부의 심리적 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부의 생활만족도를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이 은퇴한 부부가 지각한 가족 상황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은퇴 후에 부부가 인지한 스트레스 수준, 경제적 자원, 사회적 지원, 심리적 자원, 가족관계적 자원 및 생활만족도를 살펴본다.

둘째, 남편이 은퇴한 부부가 갖고 있는 자원이 부부의 심리적 적응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IV.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부부관계를 밝히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연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부를 목적적 편의 표집하였다. 서울에 사는 부부로 남편의 연령이 70세 이하이며, 남편이 은퇴 후 임금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부부이다.

자료수집은 주로 은퇴제도가 비교적 일찍이 정착된 관공서, 은행, 군인, 회사 등의 은퇴자모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눈덩이 표집을 통해 행해졌다. 총 218쌍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184쌍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82.8%) 최종적으로 178쌍의 자료(356부)만이 분석되었다. 자료는 1996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수집되었으며 SAS-PC로 통계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특징은 기초통계 자료로 산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 지수(α)를 계산하였다. 또한 부부간의 인식 차이는 paired-t 검증하였다.

2. 측정도구

1)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는 지연경·조병은(1991)이 선행연구를 근거로 작성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 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 지각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남편과 부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Cronbach's $\alpha=0.91, 0.89$ 이다.

2)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은 은퇴한 부부의 한달 수입, 수입의 적합성 정도(1=대단히 부족하다, 4=아주 넉넉하다) 및 은퇴 전과 비교하였을 때의 수입의 감소 정도로(1=매우 많이 감소했다, 4=전혀 감소하지 않았다)로 측정하였다.

3)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필요한 경우 가족 및 친지, 친구, 이웃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정신적, 경제적, 실제적 도움을 받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각 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에서 4(매우 많은 도움을 받는다)이다.

4) 심리적 자원

통제감은 Pearlin과 Schooler(1978)의 척도를 기미라(1995)가 번역하여 사용한 것을 이용하였다. 5점 척도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남편과 부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alpha=0.81, 0.74$ 이다.

5) 부부관계적 자원

힘들거나 외로울 때 배우자에게 속마음을 어는 정도나 털어놓는가를 묻는 4점 척도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에게 속마음을 많이 털어놓는 것을 의미한다.

6)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최성재(198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과거차원 내용의 6문항, 현재차원 내용의 8문항, 미래차원 내용의 6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기준은 3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3점 Likert형 척도로서 긍정적인 태도의 문항(10문항)은 '그렇다'에 2점을 '잘 모르겠다' 및 '그렇지 않다'에 0점을 부여하고 부정적인 태도의 문항(10문항)은 '그렇다' 및 '잘 모르겠다'에 0점을 '그렇지 않다'에 2점을 부여하였다. 점수범위는 0점에서 40점으로 점수가 40점에 가까울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 본 척도는 척도개발당시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받았으며, 남편과 부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0.70, 0.69이다.

이 외에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건강, 학력, 연령 및 은퇴 연수는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V. 연구결과

1. 연구대상 부부의 특성

본 연구대상 남편의 평균 연령은 61.2세($SD=4.85$)이며 부인의 평균 연령은 56.7세($SD=5.37$)이다. 남편이 은퇴한 평균 연령은 57세($SD=4.34$)이며 은퇴 후의 평균기간은 4.2년이나 2명중 1명(51.8%)의 남편은 은퇴 이후의 기간이 2년 이하이다.

남편의 학력을 보면 3명중 2명(64.7%)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 부인의 경우 절반 정도가(44.5%)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4명중 1명(24.9%)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 부부는 50대와 60대에 속한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교할 때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집단이며 이러한 특성은 남편의 은퇴 전 직업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남편의 은퇴 전 직업은 행정관리직(38%)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무직(23%), 전문기술직(16%)의 순서이다. 부인의 경우 대부분(90%)이 전업주부이며 취업을 한 경우 전문 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등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족형태를 보면 2가족 중 1가족이 부부와 미혼 자녀 만으로 구성(50.6%)되어 있으며, 5가족중 1가족(18.4%)은 부부만이, 5가족중 1가족(20.1%)은 은퇴한 부부와 기혼자녀가 함께 사는 직계가족을 구성하고 있다. 반면 은퇴한 부부와 노부모가 함께 사는 가족은 10명중 1가족(10.9%)으로 그 비율이 낮다. 이들의 평균자녀수는 3.34명($SD=1.31$)이며, 평균 기혼 자녀수는 1.85명($SD=1.57$)이다.

부인은 10명중 6.5명이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인식하며 남편은 10명중 8명 이상이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남편이 부인보다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t=10.95, P<.001$).

현재의 생활비 조달 상태를 보면 대부분이(80%)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으며 나머지 20%정도의 가족만이 자녀와 공동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 부부만의 월 평균 수입은 100-150만원에 속하는 가족이 가장 많으나(20.6%) 50만원 미만에서 4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현재의 수입원은 연금(35%), 퇴직금(38.2%), 배당금이나 이자(28.9%), 부동산 소득(32.8%), 자녀의 지원(23%), 개인 저축(45.7%) 등이다.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경우, 월평균 지원액은 278,000원(SD=592,000)이다.

2.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 자원 및 생활만족도의 전반적 경향

<표 1>과 같이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의 경우 부부 모두 중간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남편이 부인보다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많이 받고 있다. 남편의 경우 은퇴 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줄고, 이웃이나 지역사회에서 할 일이 적어졌으며,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은퇴를 상실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부부 모두 은퇴라는 단어가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며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현재의 수입이 생활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 대해 부부 모두 현재의 수입이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남편보다는 부인이 수입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남편의 은퇴 전과 비교하였을 때 부부 모두 수입이 감소하였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현재의 수입을 은퇴전 수입의 50-75%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의 감소 정도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는 부부간에 차이가 있

는 데 부인보다는 남편이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가족 및 친지, 친구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정신적 경제적 실제적 지원을 받는 정도에 있어서 부부간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부부 모두 가족 및 친지로부터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웃으로부터의 지원을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남편과 부인 모두 중간보다 높은 통제감을 갖고 있으며 남편이 부인보다는 통제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 부부가 인식하는 배우자로부터의 심리적 지원 정도는 부부 모두에게서 높았으며 부부의 지각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남편과 부인의 생활만족도는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부부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3. 남편의 자원과 생활만족도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개인적·가족적 자원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첫단계에서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통제변인(건강, 학력, 연령, 은퇴연수)을, 다음단계에서는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통제변인과 은퇴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 자원의 영향력을 보았다.

남편의 경우 상관계수 산출결과 건강, 학력, 연령,

<표 1>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 자원 및 생활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	남편	부인	Std Err	paired-t
은퇴 스트레스	44.90(12.40)	39.80(12.30)	.96	5.16***
수입의 적합성	2.48(0.50)	2.39(0.58)	.04	2.28*
수입의 감소정도	2.44(0.92)	2.57(0.90)	.06	-2.10*
가족/친지 지원	2.56(0.72)	2.60(0.78)	.07	-0.73
친구의 지원	2.24(0.73)	2.17(0.83)	.08	1.40
이웃의 지원	1.93(0.77)	1.99(0.76)	.07	-0.70
통제감	14.90(3.30)	14.00(2.90)	.30	3.37***
배우자의 지원	3.20(0.70)	3.10(0.74)	.07	1.43
생활만족도	18.60(6.91)	18.10(7.09)	.55	.91

* p<.05 , ** p<.01 , *** p<.001

〈표 2〉 남편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모델

독립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은퇴스트레스		-.59***	-.55***	-.59***	-.46***	-.58***
경제적자원	수입의 적합성		.09			
	수입의 감소정도		.02			
	한달 총수입		.07			
사회적자원	가족/친지 지원			.17*		
	친구 지원			-.01		
	이웃 지원			-.04		
심리적 자원	통제감				.32***	
부부관계적자원						.03
R ²		.35	.37	.39	.44	.34

* p<.05, ** p<.01, *** p<.001

은퇴연수 등의 통제변인들과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가 낮아 이 변인들은 회귀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첫 단계에서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다음단계에서 개인적·가족적 자원의 영향력을 보았다. 〈표 2〉와 같이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는 모든 모델에서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 변인이 생활만족도 총 변량의 35%를 설명하고 있으며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낮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으나 친구 및 이웃의 지원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통제감은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 다음으로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지각하고 있는 수입의 적합성, 은퇴전과 비교한 수입의 감소 정도, 한달 총수입 등의 경제적 자원이나 배우자로부터 받는 심리적 지원인 부부관계적 자원은 남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비교할 때 개인적·가족적 자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부인의 자원과 생활만족도

〈표 3〉과 같이 부인의 생활만족도에는 통제 변수인 건강의 영향력이 나타나 6개의 모델 모두에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는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로 밝혀졌다. 또한 남편의 경우와는 달리 경제적 자원인 수입의 적합성 정도도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넉넉하다고 지각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심리적 자원인 통제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의 경우보다 작았으며 통제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았다. 가족/친지의 지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가족/친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배우자로부터의 지원은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인의 경우에도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가 부인의 생활만족도를 가장 많이 설명하였으며 부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가족적 자원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표 3〉 부인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모델

독립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6
통제변수(건강)	.35***	.20**	.16*	.23**	.16*	.19**
은퇴스트레스		-.46***	-.37***	-.44***	-.42***	-.45***
경제적 자원			.21**			
수입의 적합성						
수입의 감소			-.06			
한달 총수입			.14			
사회적 자원				.17*		
가족/친지						
친구				-.03		
이웃				-.13		
심리적 자원					.18***	
통제감						
부부관계적 자원						.09
R ²	.12	.31	.37	.37	.33	.31

* p<.05 , ** p<.01 , *** p<.001

VI. 결론 및 논의

본 절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논의하고자 한다.

남편이 은퇴한 178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본 연구는 은퇴전환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가정하고 스트레스 인지수준을 통제된 상태에서 부부가 갖고 있는 제반 자원이 은퇴 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남편과 부인 모두 은퇴에 따른 스트레스를 상당 수준 인지하였고,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부부가 갖고 있는 심리적, 경제적, 부부관계적, 그리고 사회적 지원 등의 자원보다 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원, 부부관계적 자원은 은퇴 후의 적응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심리적 자원과 사회적 지원 중 가족/친지로부터의 지원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수반한다.

첫째,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가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적응에 가장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은퇴자와 그 배우자는 서구의 경우와 같이 은퇴를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로 보지 않으며 위기상황으로 인지하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 대상자는 대부분이 강제은퇴가 아니며, 은퇴제도가 비교적 일찍이 정착된 공무원, 은행원, 교육공무원, 군인 출신등이고 대부분 고학력 소지자이며,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심각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부정적 인생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서구 사회의 연구에 의하면 강제적 은퇴나 건강 악화로 인한 은퇴의 경우 그리고 수입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만이 은퇴를 위기로 인식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사회와는 달리 은퇴가 제도화된 지 오래지 않아 은퇴는 소수 그룹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은퇴는 노년기의 보편적인 생활사건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퇴 전후에 직업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역할(예: 여가활동, 봉사활동, 가족과의 활동)을 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강제은퇴가 아니며 경제적, 신체적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가 두려우며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 생활만족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세대 은퇴자들의 경우 개인적 정체감이 주로 직업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은퇴 후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은퇴 후 직업역할에서의 분리라는 심리적 과업을 주장한 Peck(1968)의 견해와 일치한다. Peck은 은퇴 후의 중요한 심리적 적응은 개인적 가치체계의 정립이라고 하였다. 그는 은퇴자는 직업생활을 떠나 앞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역할에 있어 개인적 가치를 재평가·재규정하여 자아의 다양성을 확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가 발생하는 시점이 가족생활주기 상 자녀들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은퇴를 스트레스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에도 평균 미혼자녀의 수가 1.5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 결혼 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많은 혼인문화도 은퇴를 스트레스로 인식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가 부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많은 부정적 영향을 준 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에 의해 사회화되어 남편의 역할 중 부양자 역할을 가장 중요시한 세대이다. 또한 남편들의 은퇴전 직업지위를 살펴볼 때 부인들도 남편의 직업지위에 따르는 안정된 수입이나 사회적 인정을 누렸으며, 남편과 마찬가지로 지위 상실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부인들도 남편의 은퇴에 따르는 상실을 경험하며 은퇴에 따르는 대체역할을 개발하지 못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편과 상호작용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은퇴를 스트레스를 주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나 은퇴 후의 적응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이 남편의 경우에는 전혀 없었으며 부인의 경우에도 총수입이나 수입의 감소 정도보다는 수입의 적합성 정도만이 영향을 미친 것은 본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대상 부부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김태현 외(1998)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은퇴 전 직업지위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직업에서의 정체감이나 내적인 만족감을 중요시하는 반면 중류지위의 종사자들이나 노동자들은 외적인 요인인 적합한 수입, 직업안정성이나 직업과 관련된 우정이나 인간관계등을 중요시한다고 한다(Simpson, Back & McKinney, 1966). 따라서 전문직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은퇴를 꺼리고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가 크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경제적 자원에 의해 완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지원 중 가족/친척으로부터의 지원은 남편이 은퇴한 부부 모두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친구나 이웃으로부터의 지원은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지원은 곧 가족/친척으로부터의 지원만을 의미할 정도로 사회적 지원망이 협소하며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변량의 변화가 작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협소한 사회적 지원망과 이웃 및 친구로부터의 낮은 지원 등은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선행연구(서병숙·이현, 1995; 최정아·서병숙, 1992)에서도 일관되게 밝혀진 바 있고 은퇴한 노년기 가족의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심리적 자원인 통제감은 남편의 경우에는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 다음으로, 부인의 경우에는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 및 수입의 적합성 다음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적응에 있어 통제감의 소유가 적응에 매우 중요한 자원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유사한 결과는 김애순·윤진(1998), 지연경·조병은(1991)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서구사회의 경우에도 경제적 자원이 충족된 사람에게는 심리적 자원이 은퇴후의 적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ichard, Livson, & Peterson, 1962; Gutman, 1972). 통제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생활이나 환경에 대해 얼마나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은퇴하거나 연로한 노인

의 신체적·심리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Pearlin & Schooler, 1978). 우리나라 현 세대 노인의 대부분은 자신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립과 독립을 추구하기 보다는 많은 것을 자녀 세대에 의존하는 것이 하나의 규범이었기 때문에 높은 통제감을 소유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노인 세대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하여야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으므로 통제성, 자립심, 독립심 등과 같은 심리적 자원은 노후 적응에 더욱 중요시 될 것이다.

다섯째, 예측과는 달리 배우자로부터의 심리적 지원 정도는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배우자로부터 중간 이상의 심리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부 모두에게 있어서 변량이 배우자 영향력이 없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은퇴전과 비교할 때 배우자로부터의 심리적 지지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신화용, 1996)에서 은퇴 후 부부가 제공하는 심리적 지지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든가 보다 다양한 부부관계의 질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이 연구에 포함되었다면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은퇴준비교육 프로그램과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제반 자원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지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은퇴 후의 자아 확장과 역할 대체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은퇴준비교육프로그램은 경제적 준비, 건강 관리, 여가활동 등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심리적 과업에 대한 준비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이 있는 은퇴자들의 경우 지금까지 직업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성취감, 의미, 기쁨 등을 다른 역할을 통해 대체하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은퇴준비교육을 통해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직업역할에 대한 몰두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자아확장을 통해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창조성을 표현하며, 내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의 상황이 의미있고 가치있는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하여는 심리적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은퇴준비교육이나 은퇴적응교육에 있어서 은퇴에 따르는 심리적 전환이 중요한 발달과업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역할 확장이나 역할 개발과 인생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은퇴자를 대상으로 필요하다. 활동이론을 근거로 은퇴 후의 지속적인 활동이 인생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는 많으나(김동배, 1989; 홍순혜, 1984) 활동의 질, 활동의 종류 그리고 어떠한 역할에 많이 참여하고 만족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므로 은퇴 후의 남성/여성의 역할과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심리적 자원이 은퇴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 본 연구 결과는 심리적 자원에 대한 심층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감 외의 다른 심리적 자원이 연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은퇴자들이 은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하는 인지적 행동적 대처행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퇴 전 직업지위, 교육수준 등에 있어서 본 연구대상에는 상위 계층이 많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직업지위나 교육수준 등이 보다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계층에 따라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 수준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자원이 은퇴 스트레스 수준과 인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리라고 예측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원래 목적은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자원이 은퇴에 따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가 하는 완충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들의 은퇴 전 직업이 상위직종에 속하는 동질집단이라는 제한점으로 인해 변인들의 변량 변화가 작아 완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제반 자원의 완충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기미라(1995). 개인적 자원이 스트레스와 갈등책략 및 우울감과의 관계에 미치는 완충 효과. 한국국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배(1988). 한국의 도시형 노인정 모형에 대한 시론. 한국노년학, 8, 43-54.
- 김애순, 윤진(1995). 은퇴이후의 사회심리적 영향-은퇴는 위기인가?- 조기퇴직과 장, 노년기의 위기문제. 제6회 노인복지 세미나. 서울: 서울특별시, 한국노년학회.
- 김정현(1995). 가족지지가 남자노인의 은퇴스트레스와 은퇴후 적응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상위직종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중숙(1987). 한국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50-169.
- 김향은, 정옥분(1992). 정년퇴직을 앞둔 중년남성의 심리적 불안. 대한가정학회지, 30(2), 159-170.
- 박충선(1995). 조기퇴직자의 가족적 지원과 대책 방안. 한국노년학, 15(1), 125-137.
- 서병숙, 이현(1995). 사회적 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 도시와 농촌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3, 43-67.
- 성미애(1999). 남성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후 적응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화용(1996). 남편의 은퇴와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한 탐색적 고찰-부인과 남편의 지각 비교-.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4, 117-131.
- 신화용, 조병은(1999).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상호작용특성과 결혼만족도. 한국노년학, 19(1), 31-44.
- 이승아(1998). 중년기 직장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자, 김태현(1999).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한국노년학, 19(3), 79-93.
- 이은영(1996). 은퇴남자 노인들의 가족관계와 신체적 심리적 건강.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춘희(1993). 남자노인의 역할활동과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형실(1999). 농촌부부 노인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3), 109-138.
- 조병은, 신화용(1997). 남편이 은퇴한 부인의 역할수행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5(4), 283-293.
- 지연경, 조병은(1991). 내외 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217-240.
-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편), 논총: 사회과학, 49, 223-258.
- 최성재(1989). 퇴직예정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생활전망의 인식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 47-65.
- 최정아, 서병숙(1992).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 65-78.
- 태원경(1995). 중등교원의 선호하는 은퇴시기 및 은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정무(1993). 교원의 정년퇴직 준비과정과 퇴직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순혜(1984). 활동이론에 따른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tchley, R. C. (1976). *The sociology of retirement*. Cambridge, MA: Schenkman.
- Bosse, R., Aldwin, C. M., Levenson, M. R., & Workman-Daniels, K. (1991). How stressful is retirement?: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46(1), 9-14.
- Carp, F. M. (Ed.) (1972). *Retirement*.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
- Floyd, F. J., Haynes, S. N., Doll, E. R., Winemiller, D., Lernsky, C., Burgy, T. M., Werle, M., & Heilman, N. (1992). Assessing retirement

- satisfaction and perceptions of retirement experiences. *Psychology and Aging*, 7(4), 609-621.
- George, L. (1980). *Role transitions in later life*. Belmont, CA: Brooks/Cole Publishing.
- Gutman, D. (1972). Ego-psychological and developmental approaches to the retirement crisis in men. In F. M. Carp (Ed.), *Retirement*.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
- Lee, G. R., & Shehan, C. L. (1989). Retire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4, 226-230.
- Pearlin, L.,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2-15.
- Peck, R. C. (1968). Psychological developments in the second half of life. In B. L. Neugarten (Ed.),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eid, D. W., Haas, G., & Hawkins, D. (1977). Locus of desired control and positive self-concept of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2, 441-450.
- Reichard, S., Livson, F., & Peterson, P. G. (1962). *Aging and personality*. New York: Wiley.
- Simpson, I. H., Back, K. W., & McKinney, J. C. (1966). Exposure to information on preparation for, and self-evaluations in retirement. In I. H. Simpson & Durham, N. C. (Eds.), *Social aspects of aging*. Duke University Press.
- Statts, S. (1974). Internal versus external locus of control for three age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 7-10.
- Streib, G. F., & Schneider, C. J. (1971). *Retirement in american society: Impact and proces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Vinick, B. H., & Ekerdt, D. J. (1989). Retirement and the family. *Generation*, 13, 53-56.
- Vinick, B. H., & Ekerdt, D. J. (1991). The transition to retirement: Responses of husbands and wives. In B. B. Hee & E. Markson (Eds.), *Growing old in America* (45th ed).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